거울아 거울아 이게 정말 나야?

(시편 105:1~45)

39.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42.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3.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거울아 거울아 이게 정말 나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게 정말 나야?'
백설 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와 앵두같이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에 황금비율로 균형 잡힌 이목구비를 가졌다고 합니다. 백설 공주가 겨우 7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새 엄마인 왕비가 시집올 때에 가져온 신비한 거울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거울은 백설 공주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백설 공주와 같이 예쁜 모습을 지향하면서 화장대 앞에 앉고, 남자들은 사회적인 평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축구선수 호날두가 골을 넣을 때에 상대편 수비수의 발에 얼굴을 맞아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선수로서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둥 방송들이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선민입니다. 늘 예뻐지기 위해 거울을 보면서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거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예쁜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냐?'라고 묻는 거울입니다. 그럼 이 거울은 반드시 '당신이 제일 추악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울을 선민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예쁨을 확인하기 위

해서 거울을 보지만 선민은 자신의 추악함을 확인하고 탄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4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례와 율법이 바로 선민들에게 주어진 거울입니다.

본 시는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나열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45절입니다.
45절은 '이는'이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선민의 역사를 기록하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선민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었습니다.
이 율례와 율법은 선민에게만 허락된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추악한 내 모습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까지는 별의별 사람들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살아왔지만 나 또한 극악무도한 사람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본다고 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초음파나 엑스레이 혹은 MRI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임신한 사람을 초음파 사진으로 찍어도 아기의 형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이 작은 점이 아기라고 알려줄 때에야 비로소 아기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민들은 율례와 율법이라는 거울의 판독법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향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나무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도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철이 되어서 사과나 배가 달리면 비로소 무슨 나무인지를 맞출 것입니다. 행위와 존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라고 하시며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존재와 연합된 상태에서

열매로서의 행위는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존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율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돈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돈 버는 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자 합니다. 재테크하는 법, 주식투자하는 법, 부동산 투자하는 법 등에 대한 책을 보고 또한 인간관계 지침이나 자기계발서를 탐독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돈을 벌기 위한 율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보다도 가짓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대한 율법들을 지켜나갑니다. 심지어 돈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기 위한 요구사항을 더 알기 원합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율법을 다 지켜나갑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율법 지키기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은 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남편과 헤어져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위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남편은 남겨져서 돈벌이를 강요받습니다. 정작 영어를 쓰는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율법의 도사가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음에 담고 최고로 여기는 존재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분봉 왕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로메에게 반했습니다. 반했다는 것은 살로메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7절을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곧 “살로메야! 너를 섬길 수 있는 율법을 나에게 제시하면 내가 그것을 다 지키마.”라고 말한 셈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율법을 말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율법과 율례의 거울을 주신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즉 권고와 교훈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위하고 사는 모습을 율법과 율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에 어긋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율법과 율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이나 짐승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이 말을 알아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인간만은 유일하게 인격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성은 곧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좋은지 싫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 또한 나를 통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미 마음에 돈 건강 자녀 사업 등의 세상의 가치를 들여놓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를 들여놓았음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질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를 자연인(自然人)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거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기적을 통해 선민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고 율법을 거울로 주셨는데 선민들은 그것을 기꺼이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보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대로의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제시하는 율법만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판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바알이 제시한 율법이 쉽게 지켜지는 이유는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좋아해서 담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바알 숭배가 요구하는 율법이 쉽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은 곧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담았기 때문임을 알고 판독을 해야 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형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력해 볼 때에만 지킬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연인으로 여겼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서 내 속에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만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거룩합니다.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돈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더러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밥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청소한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바닥에 밥을 펴 놓는다면 그 밥을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함과 깨끗함이 만났는데 더러움이 발생하고만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눈과 같이 하얀 깨끗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든 자녀든 이 세상의 가치는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홍같이 더럽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울삼아 내 마음을 비추어볼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확인하도록 이 거울을 선민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율례로 더러움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대우 받음이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의 거울을 통하지 않는다면 나의 찌든 더러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으려는 원죄의 기질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율례의 거울을 보며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1장 15장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간단히 말해 어지간히 죄로 찌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1의 복음이라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제2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루터도 "날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례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더러움을 뿌리 깊게 자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택하시고 율법과 율례라는 거울을 제시하셨습니다.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볼 때에만 십자가는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손으로 오물을 만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

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자리에 배설물을 담고서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살아왔으니 더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어떤 부족은 소똥을 제단에 올리고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설물을 마음에 담고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 역겨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 66권에 나온 율법도 부족해서 다른 율법은 더 없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에게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볼 테니 율법을 제시해 달라는 심정을 갖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율례가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울 판독법을 알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는지를 율법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주님 안의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모습에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민들에게 율법과 율례라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추하고 일그러지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자들만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죽어야 함을 생활 속에서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이 변화산에서의 영화로우셨던 예수님처럼 되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힌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교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율법과 율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일이 끔찍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귀하디귀한 놀라운 지복

을 체험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